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6년 4월 29일 -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제주DA’ AI 음성 영농일지 고도화 사업 추진-6면	농업디지털센터	제민일보
○	손으로 쓰던 영농일지 이제 AI활용 ‘말’ 로-4면	농업디지털센터	제주매일
○	AI활용 영농일지 통합 고도화 사업 본격-2면	농업디지털센터	한라일보
○	수확기 마늘·브로콜리, 이상기온으로 비상-4면	서부농업기술센터	제주일보
○	이상기후 농작물 병해충 확산 우려 서부농업기술센터, 예찰·방제 당부-4면	서부농업기술센터	제민일보
○	올봄 고온·다습에 햇빛 부족..밭작물 생육 ‘비상’ -1면	서부농업기술센터	제주매일
○	이상 기상에 밭작물 병해충 ‘비상’ -4면	서부농업기술센터	삼다일보
○	“고온다습 봄날씨 농작물 병해충 조심하세요” -3면	서부농업기술센터	한라일보
○	2026 농업인 스마트경영 혁신대회 참가자 모집-9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일보
○	가족과 함께하는 ‘꽃꽃계절 소풍’ 행사-13면	기술지원조정과	삼다일보
○	양배추 수확하는 농민들-3면	-	제주일보
○	당분간 쌀쌀한 날씨 이어져-4면	-	제주일보
○	60~70세 이상 고령자가 지키는 제주 농어촌-5면	-	한라일보

(제민일보: 2026년 4월 29일)

○ ‘제주DA’ AI 음성 영농일지 고도화 사업 추진-6면

‘제주DA’ AI 음성 영농일지 고도화 사업 추진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5월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농일지 통합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업디지털플랫폼 ‘제주DA’에 탑재된 영농일지 기능을 실제 농업 현장에 맞게 개선하고 데이터 기반 농정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축적된 데이터는 ‘제주DA’ 플랫폼 내 필지 단위의 기상, 토양, 생육, 경영 정보와 연계돼 분석 및 활용된다. 농업기술원은 5월부터 기능 설계와 개발에 착수해 오는 10월 ‘제주DA’ 애플리케이션에 해당 기능을 적용할 방침이다. ^{4.29.} 고 제민일보 6

(제주매일: 2026년 4월 29일)

○ 손으로 쓰던 영농일지 이제 AI활용 ‘말’로-4면

손으로 쓰던 영농일지 이제 AI활용 ‘말’로

농업기술원, 고도화사업 추진...체계적 정리 가능

손으로 쓰던 영농일지를 앞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작성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제주어로 말해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영농일지에 반영할 수 있는 기술이 도입된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농일지 통합 고도화 사업을 5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도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1단계 사업을 통해 비료·농약 사용 등 주요 농작업을 중심으로

로 시나리오형 디지털 영농일지를 구축해 기본적인 디지털 기록 체계를 수립했다.

이를 기반으로 이번 고도화 사업에서는 입력 방식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해 농업인이 작업 내용을 말로 전달하면 자동으로 정리·기록되는 기능을 구현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제주지역의 언어 환경과 농업 현장 특성을 반영한 인공지능(AI) 기반 음성 기록 기술이다.

제주어와 고령 농업인의 대화 방식 등

을 학습한 음성 인식 기술을 적용해 작업 내용, 사용 자재, 작업 시간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다.

텍스트 입력은 물론 사진, 위치 정보 등 다양한 기록 방식을 지원하고 통신 환경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도 데이터를 우선 저장한 뒤 자동 전송하는 기능을 도입해 현장 활용성을 높인다.

축적된 영농일지 데이터는 ‘제주DA’ 플랫폼 내 필지 단위의 기상·토양·생육·경영 정보와 연계돼 활용된다.

농업인은 누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영농 관리와 경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행정은 이를 활용해 정책 수립



등 농정 전반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 농업기술원은 5월부터 기능 설계 및 개발에 착수해 10월 중 ‘제주DA’ 앱에 해당 기능을 탑재할 계획이다. 이후 12월까지 농업인 200명으로 구성된 ‘제주DA 파트너스’를 대상으로 현장 테스트를 진행해 서비스 완성도를 높여 ^{4.29.} 나 제주매일 4

(한라일보: 2026년 4월 29일)

○ AI활용 영농일지 통합 고도화 사업 본격-2면

AI활용 영농일지 통합 고도화 사업 본격

음성 자동 기록 기능 도입 농작업 입력 편의성 강화

제주특별자치도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농일지 통합 고도화 사업을 오는 5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농업디지털플랫폼 '제주DA'의 영농일지 기능을 현장 중심으로 개선해 농업인의 기록 부담을 줄이고 데이터 기반 농정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도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1단계 사업을 통해 비료·농약 사용 등 농작업을 중심으로 시나리오형 디지털 영농일지를 구축해 기본 기록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고도화 사업에서는 입력 편의성을 높여 농업인이 작업 내용을 말로 전달하면 자동으로 정리·기록되는 기능이 도입된다. 제주어와 고령 농업인의 대화 방식을 학습한 음성 인식 기술을 적용해 작업 내용과 사용 자재, 작업 시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축적된 영농일지 데이터는 '제주DA' 플랫폼 내 필지 단위 기상·토양·생육·경영 정보와 연계된다.

도 농기원은 5월부터 기능 설계와 개발에 착수해 오는 10월 '제주DA' 앱에 해당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다. 이후 12월까지 농업인 200명으로 구성된 '제주DA 파트너스'를 대상으로 현장 테스트를 진행한다. 김채현기자 hakch@한라일보 2026. 4. 29.

(제주일보: 2026년 4월 29일)

○ 수확기 마늘·브로콜리, 이상기온으로 비상-4면

수확기 마늘·브로콜리, 이상기온으로 비상

짙은 비날씨로 병해충 위험 높아...적기 방제 등 필요

마늘과 브로콜리 수확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기후변화로 병해충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 농업기술센터는 올봄 이상기상으로 서부지역 주요 밭작물의 병해충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현장 예찰과 기술 지원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농가에 철저한 병해충 관리와 적기 방제를 당부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고산지역 평균기온은 14.4도로 평년보다 1.7도 높았고, 강수량은 129.8mm로 평년(58.7mm)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일조시간은 86.4시간으로 평년보다 33.8% 줄었다.

이처럼 비 날씨가 이어지면서 고온·다습하고 일조가 부족한 기상 조건으로 병해충 발생에 적합한 환경이 되고 있다.

도내 마늘 전체 재배면적의 87%가 서부지역에 집중돼 있고, 마늘과

봄브로콜리의 수확도 앞둔 만큼 병해충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짙은 경우는 마늘의 세균성병인 잎집썩음병과 무름병 발생을 확산하는 주요 요인이다. 두 병해는 과습한 환경에서 발생이 증가하는 특성을 지녀 배수로를 정비해 토양 과습을 방지하고 포장 내 발병 개체는 즉시 제거해야 한다.

잎집썩음병은 생육 중기 잎집이 담갈색으로 변하고 부패가 진행돼 심할 경우 구까지 피해가 확산된다. 무름병은 생육 초기 지제부(줄기 밑 부분)에서 발생해 식물체가 부패하고 악취를 동반하며 쓰러지는 증상을 보인다. 발생 초기 등록 약제를 활용한 선제적 방제가 중요하다.

봄브로콜리는 배추좀나방 피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배추좀나방은 연간 발생 세대수가 많고, 밀도가 높아질 경우 피해가 급격히 증가한다.

4. 29.
제주일보

(제민일보: 2026년 4월 29일)

○ 이상기후 농작물 병해충 확산 우려 서부농업기술센터, 예찰·방제 당부

이상기후 농작물 병해충 확산 우려 서부농업기술센터, 예찰·방제 당부

한림·한경·대정·안덕 등 중심
마늘 재배 면적 87% 서부권

올봄 이상기후 현상으로 서부지역
밭작물의 병해충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적기 방제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
센터(소장 강병수)는 밭작물의 병
해충 발생에 대비해 농가에 철저한
병해충 관리·적기 방제를 당부했다.

제주지방기상청(고산지역)에 따
르면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평균기
온은 14.4도로 평년보다 1.7도 높았
다. 강수량은 129.8mm로 평년(58.7
mm)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일조시간은 86.4시간으로 평년보
다 3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마늘 전체 재배면적 중
87%가 서부권(725.1ha)에 집중됐
다. 현재는 특히 5월 일부 작물 수확
을 앞두고 병해 관리가 중요한 시점
이다.

또한 봄브로콜리는 화퇴 형성기
로,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 해충 관리
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짚은 강우는 마늘의 세균성병인
잎집적응병과 무름병 발생을 확산시

키는 주요 요인이다.

두 병해는 과습한 환경에서 발생
이 증가하는 만큼 배수로를 정비해
토양 과습을 방지하고 포장 내 발병
개체는 즉시 제거해야 한다.

잎집적응병은 생육 중기 잎집이
담갈색으로 변하고 부패가 진행돼
심할 경우 구까지 피해가 확산된다.

봄브로콜리는 배추좀나방 피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배추좀나방
은 연간 발생 세대수가 많고 밀도가
높아질 경우 피해가 급격히 증가한
다.

센터는 한림·한경·대정·안덕 지
역을 중심으로 병해충 예찰을 기존
격주에서 매주로 강화했다.

또한 매주 수요일 ‘현장소통의 날’
을 운영해 농가를 직접 방문하고 맞
춤형 방제 기술을 지원하는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김유근 농촌지도사는 “올봄 기상
은 병해충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
기 쉬운 조건”이라며 “수확을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병해충 발생 여
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등록 약제 사
용과 수확 전 안전사용기준을 준수
해 적기 방제를 실시해 달라”고 강
조했다.

4.29강
제민일보 4
고은익 기자

(제주매일: 2026년 4월 29일)

○ 올봄 고온 다습에 햇빛 부족...밭작물 생육 '비상' -1면

올봄 고온·다습에 햇빛 부족...밭작물 생육 '비상'

5월 수확기 앞둔 마늘 구 비대 병해 관리 중요
브로콜리 배추좀나방 우려...서부농기술센터 주의

올 봄 제주지역에 이상 기온이 지속되면서 서부지역 밭작물 생육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지방기상청(고산지역)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21일까지 평균기온은 14.4℃로 평년보다 1.7℃ 높았으며 강수량은 129.8㎜로 평년(58.7㎜)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하지만 일조시간은 86.4시간으로 평년보다 33.8% 감소했다.

서부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도내 마늘

전체 재배면적 중 87%가 서부권(725.1ha)에 집중돼 있다. 현재 구 비대 최성기로 5월 수확을 앞두고 병해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또한 봄브로콜리는 화회 형성기로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 해충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젖은 비는 마늘의 세균성병인 잎집썩음병과 무름병 발생을 확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두 병해는 과습한 환경에서 발생이 증가하는 만큼 배수로를 정비해 토양

과습을 방지하고 포장 내 발병 개체는 즉시 제거해야 한다.

잎집썩음병은 생육 초기 잎집이 담갈색으로 변하고 부패가 진행돼 심할 경우 구까지 피해가 확산된다. 무름병은 생육 초기 지제부(줄기 밑부분)에서 발생해 식물체가 부패하고 악취를 동반하며 쓰러지는 증상을 보인다. 발생 초기 등록 약제를 활용한 선제적 방제가 중요하다.

브로콜리는 배추좀나방 피해를 주의해야 한다. 배추좀나방은 연간 발생 세대수가 많고 밀도가 높아질 경우 피해가 급격히 증가한다. 애벌레는 잎 뒷면에서 엽육을 갉아먹으며 흰색 반점 형태의 피해

흔적을 남기고 심할 경우 잎맥만 남을 정도로 식물에 해를 입힌다.

약제저항성이 높은 해충인 만큼 애벌레 발생 초기 신속한 방제가 중요하며 발생 밀도가 높을 시에는 7~10일 간격으로 2~3회 약제를 살포하되 계통이 다른 약제를 번갈아 사용해야 한다.

서부농업기술센터는 한림·한경·대정·안덕 지역을 중심으로 병해충 예찰을 기존 격주에서 매주로 강화했다. 또한 매주 수요일 '현장소통의 날'을 운영해 농가를 직접 방문하고 맞춤형 방제 기술을 지원하는 등 현장 밀착형 제주매일 1 최평근 기자

(삼다일보: 2026년 4월 29일)

○ 이상 기상에 발작물 병해충 ‘비상’ -4면

이상 기상에 발작물 병해충 ‘비상’

마늘·브로콜리 농가 각별 주의 요구...농기센터, 현장 예찰기술 지원 강화

최근 고온·다습과 일조 부족으로 마늘·브로콜리 병해충 발생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올봄 이상 기상으로 서부 지역 주요 발작물의 병해충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현장 예찰과 기술지원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젖은 강우로 마늘의 세균성병인 잎집썩음병과 무름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두 병해를 막으려면 배수로를 정비해 토양 과습을 방지하고 포장 내 발병 개체는 즉시 제거해야 한다. 잎집썩음병은 생육 중기 잎집이 담갈색으로 변하고 부패가 진행돼 심할 경우 구까지 피해가 확산한다. 무름병은 생육 줄기 밑부분인 지제부에서 발생해 식물체를 부패시키면서 악취를 동반하고 쓰러지는 증상을 보인다. 발생 초기 등록 약제를 활용한 선제적 방제가 중요하다.

봄브로콜리는 배추좀나방 피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배추좀나방은 연간 발생 세대수가 많고 밀도가 높아지면 피해가 급격히 증가한다. 애벌레는 잎 뒷면에서 엽육을 갉아먹어 흰색 반점 형

태 피해 흔적을 남기고 심할 땐 잎맥만 남는다. 약제저항성이 높은 해충인 만큼 애벌레 발생 초기 신속한 방제가 중요하다. 발생 밀도가 높을 시 7~10일 간격으로 2~3회 약제를 살포하되 계통이 다른 약제를 번갈아 사용해야 한다.

서부농업기술센터는 한림·한경·대정·안덕을 중심으로 병해충 예찰을 격주에서 매주 단위로 강화하고, 매주 수요일 ‘현장 소통의 날’을 운영해 현장 밀착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4월 1~21일 평균기온은 14.4도로 평년보다 1.7도 높았고, 강수량은 129.8mm로 평년(58.7mm)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일조시간은 86.4시간으로 평년보다 33.8% 감소했다.

마늘은 제주지역 전체 재배면적 중 87%가 서부권(725.1ha)에 집중돼 있다. 현재 구비대 최성기로 5월 수확을 앞두고 병해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봄브로콜리는 화퇴 형성기로, 안정적 수확을 위해 해충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현종 기자 tazan@sam삼다일보 4.29.

(한라일보: 2026년 4월 29일)

○ “고온다습 봄날씨 농작물 병해충 조심하세요” -3면

“고온다습 봄날씨 농작물 병해충 조심하세요”

도농업기술원 주의 당부

올봄 이상기상으로 서부지역 주요 밭작물의 병해충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가 현장 예찰과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농가에 적기 방제를 당부했다.

28일 제주지방기상청의 고산지역 관측 결과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평균기온은 14.4℃로

평년보다 1.7℃ 높았고, 강수량은 129.8mm로 평년(58.7mm)의 2배를 넘었다. 일조시간은 86.4시간으로 평년보다 33.8% 감소했다.

센터는 잦은 비와 고온다습한 날씨, 일조 부족 등으로 병해충 발생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서부권에서는 제주지역 마늘 재배면적의 87%(725ha)가 집중돼 있어 수확기를 앞둔 병해 관리가 중요하며, 봄브로콜리 역시

화퇴 형성기로 해충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마늘은 잎집썩음병과 무름병 예방을 위해 배수로 정비와 발병 개체 제거가 필요하고, 봄브로콜리는 배추좀나방 발생 초기에 신속한 방제가 요구된다.

서부농업기술센터는 한림·한경·대정·안덕 지역을 중심으로 병해충 예찰을 기존 격주에서 매주로 강화했으며, 매주 수요일 ‘현장소통의 날’을 운영해 농가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한라일보 3

(제주일보: 2026년 4월 29일)

○ 2026 농업인 스마트경영 혁신대회 참가자 모집-9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실시간 판매

▲접수기간=4월 13일(월)~4월 30일(목)

- (접수) ~4월 30일 → (사전심사) ~5월 11일 → (혁신대회) 5월 14일

▲참가자격=도내 농업인 누구나
* 최근 3년('23~'25년) 중앙단위 '농업인 스마트경영 혁신대회' 동일 부문 수상자 제외

▲시상=상장 및 부상 6점(부문별 최우수, 우수 각 1점)

* 각 최우수 수상자는 1:1 레벨업 교육, 농촌진흥청 혁신대회 참가,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 홍보부스 지원

▲접수처=부문별 신청서 및 출품작 이메일 제출(jejublue@korea.kr)

▲문의=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지도협력팀(760-7512)

*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원 누리집(<https://agri.jeju.go.kr/agri/index.htm>) 참고

제주일보 9

2026 농업인 스마트경영 혁신대회 참가자 모집

▲경진부문(3부문)

△혁신사례=스마트경영 기반 지역 농업과 농가 혁신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 사례 발표

△스마트콘텐츠=신품종 홍보 및 신기술 보급 확대 등 농업인이 직접 제작한 쇼츠 영상

△라이브커머스=농업인이 직접

(삼다일보: 2026년 4월 29일)

○ 가족과 함께하는 ‘굴꽃계절 소풍’ 행사-13면

가족과 함께하는 ‘굴꽃계절 소풍’ 행사

집(<https://www.jicexpo.com>)

▲일시=5월 9일(토) 오전 10시
▲장소=서귀포농업기술센터(남원읍 하례리) 일대
▲참여 대상=도민·관광객 등 누구나/300명 내외

△사전예약 필수
▲주요 내용=굴꽃계절길 걷기, 굴꽃 화전 만들기, 굴꽃차 시음, 소원나무 꾸미기, 하굴청 담기 등
▲사전 예약=제주감굴박람회 누리

▲체험비
△사전 예약=5000원
△당일 현장 접수=1만5000원
▲문의=(사)제주국제감굴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국 762-3091, 농업기술원 760-7512. 4. 29. 삼다일보 13

(제주일보: 2026년 4월 29일)

○ 양배추 수확하는 농민들-3면



4. 29. 제주일보 3

양배추 수확하는 농민들

28일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소재 한 밭에서 농민이 수확한 양배추를 트럭에 싣으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고봉수 기자

(제주일보: 2026년 4월 29일)

○ 당분간 쌀쌀한 날씨 이어져-4면

당분간 쌀쌀한 날씨 이어져

최근 초여름 같았던 날씨가 29일부터 기온이 내려가면서 당분간 쌀쌀할 전망이다. 4. 29. 제주일보 4

28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9일 제주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10~13도로 평년(11~14도)보다 낮아진다. 이날 낮 최고기온도 15~16도로 평년(19~20도)보다 다소 떨어질 전망이

다. 30일에도 아침 최저기온(10~12도), 낮 최고기온(16~17) 모두 평년 대비 낮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김문기 기자

(한라일보: 2026년 4월 29일)

○ 60~70세 이상 고령자가 지키는 제주 농어촌-5면

60~70세 이상 고령자가 지키는 제주 농어촌

국가데이터처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 발표
농가 인구 35.0%, 어가 인구 48.8%, 임가 인구 37.3%
농가 경영주 47.6% 65세 이상... 40대 미만 2.1% 뿐

제주지역 농가인구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타났다. 어가 인구는 고령인구 비중이 더 많아 절반에 가까웠다. 2025년 말 도내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 비중이 20.1%임을 감안하면 농어가 고령화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28일 이런 내용의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잠정)'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5년 단위로 이뤄진다.

4.29. 12월 1일 기준 도내 농
한라일보 5 9050명 중 고령인구

비중은 35.0%(3만1132명)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인 2020년(28.8%)보다 6.2%포인트 늘어난 규모다. 어가 인구 중 고령인구는 48.8%(5550명 중 2707명), 임가 인구는 37.3%(2496명 중 931명)를 차지했다.

농어가 경영주의 고령화는 더 심각했다. 농가 경영주 3만8165명 가운데 65세 이상은 47.6%(1만8148명)로, 2명 중 1명 꼴에 가까웠다. 70세 이상 경영주가 31.8%(1만2154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 31.4

%(1만1966명), 50대 25.2%(9600명), 40대 9.6%(3647명)로 나타났다. 40세 미만 경영주는 2.1%(798명)에 그쳤다.

어가는 2620명 중 고령 경영주가 63.2%(1656명), 임가는 51.8%(1067명 중 553명)로 나타났다.

도내 농가의 평균 가구원은 2.33명으로, 주된 가구 유형은 2인 가구(47.8%)로 나타났다. 이어 1인 가구 20.0%, 3인 가구 17.0%, 4인 가구 10.5%다.

이처럼 농어가의 고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지난해 농가 인구는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7만9797명에서 8만 9050명으로 11.6% 증가해 전국평균 증가율(8.3%)을 웃돌았다. 2000년

12만9152명이던 농가 인구는 2005년 11만0281명, 2010년 11만4539명에서 2015년에는 9만3404명으로 10만명 아래로 떨어졌고 2020년에도 7만9797명으로 14.6% 감소했던 데서 2025년 상승 전환한 것이다.

지난해 제주를 포함한 전국의 농가 인구 증가는 고령층의 농업 참여와 도시 농부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온 귀농·귀촌의 추세적인 하락세가 반등했는지 여부는 앞으로 더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도내 어가 인구는 2020년(6833명) 대비 18.8% 감소했다. 임가 인구도 2020년(2704명)에 견줘 7.7% 줄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